

2026년 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7.10)

인사말씀

2026. 7. 10.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이석원 위원장입니다.

먼저 2026년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금융회사 대표자님들과
정보보호 업무를 맡고 계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금융 보안 현장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애써 주신 공로로
금융보안 유공 표창을 받으시는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의
디지털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미토스」 사례와 같이
AI가 스스로 보안 취약점을 찾고,
공격 경로를 설정하고,
실행까지 시도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금융회사들도
다가올 AI 보안 위협의 실체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작년에 벌어진
여러 건의 정보유출·해킹 사고를 교훈삼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숨 가쁘게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응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망을 닫고, 접속을 제한하고, 사후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AI 공격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공격자가 AI로 취약점을 찾고, 공격 경로를 설정하는 만큼,
우리도 AI를 이용해 더 빨리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취약점을 확인하여, 즉각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AI 보안테스트를 위한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기준과 내용을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안심하고
AI 보안테스트와 보안패치를 할 수 있도록
면책조치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충분한 AI·보안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도입,

상시적·자체적인 정보보호 관리와 투자 유도를 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와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도로 지능화·첨단화되는 해킹 범죄에
정보보호·금융보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금융 안전법」(안)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제도개선에 나서는 만큼,
금융권의 선제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망분리 규제 완화, 면책 조치 등을 바탕으로
AI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새로운 시도와 적극적인 보안강화를 당부드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주저하지 말고 정부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고 충분한 보안 투자 및 인력 확보,
해킹에 대비한 상시 감시, 모의 훈련 등
보안 업무 전반에 대한
CEO와 이사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 의사결정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은 제품이 아니라 과정이다.”

(Security is a process, not a product)

- 브루스 슈나이어(Bruce Schneier)* -

* 미국 컴퓨터 보안·암호 전문가

보안은 한 번의 투자나 하나의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대비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반복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AI 시대 금융보안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금융권이 한발 앞서 대응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